

투데이 칼럼

민족의 명산, 덕유산으로 떠나는 가을여행

사계의 비경이 살아있는 곳, 덕유산

전라북도(무주군·장수군)와 경상남도(거창군·함안군) 2개도, 4개 군에 걸쳐 229.43km에 달하는 면적을 가진 덕유산국립공원은 기암절벽과 폭포, 계곡 등이 어우러진 사계의 비경이 그 아름다움을 대표한다.

덕이 많아 넉넉한 산, 어머니의 산이라고 불리는 덕유산은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 높은 산으로 1975년 국내에서 10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북쪽으로 흐르는 금강과 동쪽으로 흐르는 낙동강의 수원(水源)으로 영호남을 잇는 대표적인 명산이다.

▲ 왜병으로부터 백성을 지켜주었던 민족의 명산

덕유산의 원래 이름은 광여산(匡廬山)이었다. 임진왜란 당시 수많은 백성들이 전외(戰禍)를 피하기 위해 산으로 숨어들어 왔는데, 신기하게도 왜병들이 이곳을 지나갈 때면 안개가 자욱해져 백성들을 보호해 주었다고 한다.

덕분에 전쟁의 참화를 면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그때부터 덕이 많은 산이라 하여 덕(德)자, 넉넉함 '유(裕)자'를 붙여 덕유산이라 불렀다고 한다.

▲ 단풍 절정은 10월 하순(21일~31일)

덕유산은 빼어난 설경으로 인해 겨울이 특히 유명하다. 연간 평균 170만 명의 탐방객 중 60%의 탐방객이 겨울에 집중되는 것만 봐도 그 아름다움을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덕유산의 매력이 겨울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33경의 비경이 펼쳐지는 구천동 계곡과 함께 적상산이 고운 빛깔 오색 단풍을 자랑하기 때문이다.

올 가을은 비교적 큰 일교차로 인해 단풍이 물들기 앞뎠은 날씨가 이어져 예년보다 더 고운 단풍을 만날 수 있다. 10월 하순 경(21일~31일)에 덕유산을 찾았다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 국립공원 단풍길 10선에 선정, 구천동~백련사 트레킹 코스

33경의 비경이 펼쳐지는 구천동 계곡 길을 따라 걷다보면 붉게 물든 덕유산을 만날 수 있다. 구천동에서 백련사 구간은 '2016년 국립공원 단풍길 10선'에 선정돼 그 아

름다움을 인정받은 가을 명소이다. 총 6km(1시간 30분)의 완만한 구간으로 온 가족이 함께 걷기에 적당하며, 탐방로 계곡 건너편에는 옛 선인들이 거닐던 '구천동 옛길'이 복원돼 단풍으로 짙게 물든 오솔길을 만날 수 있다.

▲ 붉은 차마를 두른 산 적상산 전망대 드라이브 코스

적상산은 사면이 증암절벽으로 둘러싸여 단풍이 붉게 물든 모습이 여인들의 차마 형상과 같아하여 적상(赤裳)이라 이름 붙였을 만큼 유명한 가을명산이다.

그 뛰어난 비경은 전국의 내로라하는 가을 유명산에 걸맞지 못하지 않는다. 차마를 이용해 20분 정도 오르면 정상부에 도착하는데 넓은 고원과 산정호수, 전망대가 단풍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만든다. 또한 조선시대 4대 사고지 중 하나인 적상산사고지와 안국사, 머루와인동굴이 있어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 안전산 산행을 위한 준수사항 즐겁고 안전한 가을여행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로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해 무리한 산행을 피해야 한다. 둘째로는 알맞은 복장과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가을산은 지면이 미끄러워 부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등산화, 스틱 등의 안전장비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음주산행은 안전사고 발생과 여행을 방해하는 주된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금해야 한다.

▲ 자연이 주는 혜택을 마음껏 누리려는 곳

덕유산국립공원은 탐방객의 다양한 이용행태를 충족시키는 곳이다.

초급부터 삼급까지 이용할 수 있는 탐방로와 국내 최대 규모의 덕유대어장, 탐방해설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어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다. 또한 일부 명소는 차마 이용이 가능해 누구나 자연이 주는 혜택을 적절하게 누릴 수 있다.

가을은 자연의 오색찬란함을 즐길 수 있는 유일한 계절이다.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이번 주말 카메라를 들고 단풍에 물든 덕유산국립공원을 찾았다면 평생의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을 렌즈 속에 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사설

도내 여러 군 지역에 암 발생률이 높다

전북도에 또 하나의 숙제가 던져졌다. 도내 군 지역에 암 발생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것도 어느 한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도내 다수 군 지역이 그렇다는 보도이다. 우리 전북이 가난한 고장이라는 해도 살기 좋은 청정지역으로 믿고 있었는데 전혀 뜻밖이다. 정말이지 예상 밖의 소식이다. 도민 대다수는 근심하면서 탄식하고 있을 터이다. 어안이 병병해 할 말을 잊은 이도 있을 것이다.

이같은 보고는 국회 보건위협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연세대 보건대학원 박소희 교수에 의뢰한 연령 표준화 분석에 따른 것이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0대 암 발생률 상위 10개 시군구 현황' 말이다. 그러므로 도내 여러 군 지역에 암 발생률이 높다는 보고는 전혀 허튼 것이 아니다. 해당 지자체의 당국자들은 담당 환자 세대를 방문해 확인 작업에 들어가 마땅하다.

전북도와 도내 군 지자체들은

발암 적색경보 앞에서 긴장해야 한다. 전국 상위 10개 시군구 지역 중에 우리 전북의 6개 군이 들어갔다는 것은 보통 사안이 아니다. 더구나 장수군은 폐암 발생률이 전국 최고이고 무주군은 폐암 암 발생률이 전국 최고이다. 대내외에 우리 전북이 청정 지역임에 장수 지역임에 자랑했었던 그 오랜 세월이 기가 막힐 노릇이다. 폐암연하고 도지사야 해당 군수들과 보건 업무 관계자들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다시 강조하거나 도내 군 지역에 암 발생률이 높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서두에서 말한 대로 전북도가 담당 해결해야 할 속제가 아닐 수 없다. 바라는 바 되는 일은 없고 안 좋은 소식만 들리고 있으니 폭폭할 터이지만 속히 나서야 한다. 암 발생이 높은 까닭이 무엇인지 속히 밝혀내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말이지 진정성을 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는 자세로 일해 달라는 당부이다.

서민 위해 일자리 다룬 일자리 더 늘려야

전북도와 도내 각 시군 지자체에 주문하고 싶은 게 있다. 서민을 위한 일자리를 더 늘려야겠다. 도내에 여전히 미취업자가 많은 것은 우울한 일이다. 도내 각 시군 지자체들은 약속한 것과 비교해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 일자리 성과를 정직하게 평가해야 한다. 일자리를 꾸준히 내놓고 있지만 미취업자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무슨 까닭으로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것인지 알아야 한다. 물론 이같은 지적은 정말 모르리라고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전북도와 시군 지자체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일자리에 대한 눈높이 때문에 그럴 거라는 것을 말이다. 그래도 배가 불렀으니 어찌느니 하면서 미취업자들을 매도해서는 안 된다. 미취업자들의 그같은 반응은 당연하다. 실업 상태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일자리들이 수도룩한 것이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지금 다시 짚어볼 게 있다. 약속했던만큼 일자리 창출이 활발하였는지 평가해야 한다. 취직을 미루고 있는 이들이 많은

이유를 제대로 파악했으면 하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이 많았지만 서민들의 실질살이가 나아졌을 터이다. 그런데 현재 그렇지가 못하다. 그래서 또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일자리 창출 성과에 대해 반성할 게 있다면 반성해야 한다. 일자리 내용과 관련해서 부풀리는 식의 발표는 바르지 않다. 발표가 정직했다면 오늘날 어찌서 예전 그대로 서민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헤매겠는가. 전북도가 내놓은 일자리 중에는 보수가 적은 게 하나 풀이 아니다. 그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서민들이 생활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전북도와 도내 각 시군 지자체는 명심해야 한다. 예전에도 말했지만 일자리의 창출은 신뢰성이 중요하다. 미취업자들 중에는 차라리 노동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 인력공사를 찾고 있는 판이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현실에 맞는 일자리를 더 마련할 수 없는지 고민해야 한다. 일자리다운 일자리를 더 늘려야 한다는 부탁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독자제언

악의 순환 고리 관공서 주취소란, 이제는 그만

경찰력 특히 일선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의 업무는 각종 범죄의 예방과 단속을 위해 집중되어야 함에도, 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자로 인하여 경찰력이 낭비되고, 그 주취자 처리로 인하여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출동이 지연되어, 선량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만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3월 경범죄 처벌법이 개정돼, 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난동 행위자에 대해서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어, 현행법 체포가 가능하므로, 일선에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읊주는 사교의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술을 마신 후에

실수나 문제되는 행동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상당히 많은 부분 양해가 되는 관대한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다.

또한 공권력 경시 풍조가 빚어낸 현상 중 대표적인 것으로, 일부 주취자들이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고통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여, 경찰 본연의 업무를 방해하여도 "술 먹었으니까 이해해 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큰 오산이며 분명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법과 원칙을 존중하며 서로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들 스스로 술 문화에 대한 의식 개선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김성묵진안경찰서 통합안전파출소 경위

독자제언

미야방지 지문사전등록제 적극 활용을

무더운 여름이 가고 서늘한 가을이 다가오면서 전국적으로 가족단위 단풍구경 등 나들이가 늘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는 관광객 유치에 위해 많은 행사와 축제를 벌인다. 이 시기에는 실종아동 신고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 어느 때보다 영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을 중심으로 한 철저한 보호와 관찰이 필요한 시기다. 이에 따른 안전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기인 것이다.

이처럼 아동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어린이에게 집 주소, 부모 전화번호 등을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외출 시에 브로치, 목걸이 형태 등의 미야방지용품을 착용하게 하거나, 2012년 7월부터 경찰청에

서 시행하는 '사전 미야방지 지문등록제'를 통해 아동이 실종되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다.

사전지문등록제란 아동 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경찰청 시스템에 미리 아이의 지문과 사진, 연락처, 생년월일, 신체적 특징 등을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히 발견할 수 있는 제도이다.

대상은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 장애인, 치매노인이며 지문 등록 방법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 또는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 인터넷 안전Dream(www.safe182.gokr)로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지문은 방문하여 등록해야 한다.)

이국인 원안경찰서 서학파출소 순경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문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